예비 큐레이터들 광주미술의 내일을 꾸미다

광주시립미술관 실무연수생 기획전 '네개의 문'

이민주·이유승·노현경·황은희씨 4명
작가 선정·작품 배치·계약 등 직접 진행
이두환·주라영·나지수·안유자 작가 초청
"모두에 행복 전해주는 기획자 되고 싶어"

▲광주시립미술관 실무연수생들이 직접 기획한 '네개의 문' 전시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은희, 이민주, 이유승, 노현경씨.

젊은 시각으로 바라 본 광주 미술은 어떤 모습일까. 공립미술관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예비 큐레이터 4명이 직접 기획한 전시를 통해 광주 미술의 오늘과 내일을 들여다본다.

지난 13일 방문한 광주시립미술관 로비 아트라운지에서는 '네 개의 문'을 주제로 작가 4명이 참여한 단체전이 열리고 있었다. 하얀색 벽에 가지런히 배치된 회화, 설치, 미디어아트는 서로 다른 장르임에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줬다. 무겁고, 밝고, 재미있는 제각각 이미지들이지만 모두 현대인의 단상을 담고 있는 게 엿보였다.

전시를 기획한 이들은 지난 1년간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교육을 받은 실무연수생 이민주(여·23)·이유승(여·23)·노현경(여·24)·황은희(여·23)씨. 기획부터 작가섭외, 작품배치, 계약 등 서류작업까지 전 부문을 직접 맡아 진행했다.

노현경씨는 "전시를 직접 기획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며 "전시 주제 '네개의 문'은 각자 성향이 다른 기획자와 '문을 열고 새로운 길로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실무연수생은 정식 큐레이터가 되기 전 거쳐야 하는 제도이다. 연수생 2년 경력과 관련 대학원을 졸업하면 3급 학예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날 만난 4명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연수생 1년차를 보내고 있었다.

조선대 시각문화큐레이터학과를 졸업한 이유승씨는 "졸업작품전을 열어 보긴 했지만 정식 미술관에 몸을 담아 보니 많은 것을 새로 배울 수 있었다"며 "당시 졸업작품전은 6개월 동안 준비했던 반면 이번 전시는 학예사님들의 도움으로 한달만에 준비해 '역시 전문 학예사들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민주씨도 "여러 전시를 옆에서 보며 초기엔 '수십점의 작품을 다 걸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작품 크기, 간격, 종류, 내용에 따라 다 배치하는 걸 보고 놀랐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이민주씨는 이두환 작가, 이유승씨는 주라영 작가, 노현경씨는 나지수 작가, 황은희씨는 안유자 작가를 각각 선정했다.

황은희씨는 "지난 11월 열린 '미디어아트페스티벌' 때 안유자 선생님이 전시한 작품을 보고 꼭 초청하고 싶었다"며 "안 선생님은 그동안 전시를 잘 열지 않아서 부담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불꽃놀이 형상 신작 '파채' 작품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니 흔쾌히 출품해 주셨다"고 섭외 배경을 말했다.

이민주씨는 "경쾌한 분위기 속에 무거운 주제를 지닌 작품을 전시하고 싶어 동물을 통해 현대인을 풍자하고 있는 이두환 작가를 초청했다"며 "밝은 작품 이미지와는 달리 온 정성을 기울여 작업하는 이 작가를 만나며 한국화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조각·설치 작품을 전시하고 싶었던 이유승씨는 "주라영 작가는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을 형상화해 현대인들을 표현한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노현경씨는 "헐벗은 군중을 통해 개개인 연결관계를 표현한 나지수 작가와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장은 왼쪽부터 나지수·주라영·안유자·이두환·다시 안유자 작가순으로 작품을 설치했다. 작가와 상의한 후 작품 위치를 잡고 내용에 따라 작품을 조화시켰다.

이들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시립미술관을 떠나 지역 사립미술관이나 국립광주박물관 등에서 연수생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 좋은 전시를 꾸리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아직 배워야 하는 게 산더미예요. 지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무엇보다도 모두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싶습니다." 문의 062-613-71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두환 작 '현대인의 초상'

광주신세계갤러리 연말기획전

내년 1월 17일까지…작가 6명 20여점 출품

▶김기수 작 'CUBE'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연말기획전으로 우리 인생의 반짝이는 소중한 순간들을 되돌아 보는 '반짝이는 순간들'(Shining Moments)'전을 14일~2017년1월17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기수·김상연·이이남·이정록·장인희·황혜선 등 작가 6명이 참여해 영상·설치·사진·회화 등 20여점을 출품한다. 작가 저마다 소중한 순간들을 담은 작품들이다.

김기수 작가는 물을 거울에 빗대 표현하며 흰 보자기를 씌우거나 철을 부식시키는 방법으로 작업한 'CUBE' 시리즈를 출품했다. 김상연 작가는 목조각에 아크릴물감을 칠해 날개 달린 소를 형상화한 '풀다'를 통해 존재와 인간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을 풀어보고자 하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이남 작가는 유럽 성당에 '다시 태어나는 빛'·'붉은 묵죽도'·'담양의 빛' 등 기존 작품 이미지를 한데 모은 신작 '붉은 크리스마스'를 출품했다.

이정록 사진작가는 'Tree of Life', 'Decoding Scape' 두 연작을 전시한다. 고즈넉한 배경 속 빛나는 나무를 배치시켜 정신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그밖에 장인희 작가는 거울 PET 필름으로 반복적으로 잘라 사람 형상을 만든 'Frozen Moment'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한다.

황혜선 작가는 테이블 위에 놓은 컵 등을 단순화시킨 작업을 하고 있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이나 물건을 일기를 써내려가듯 표현한 '그것 그곳 그순간'은 사소하지만 소중한 추억들이다. 문의 062-360-163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국악방송 '내일로…' 18일 송년특집 공개방송

광주국악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내일로 가는 우리음악'이 송년특집 공개방송을 오는 18일 오후 5시 문화공간 '보헤미안'에서 연다.

하우스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방송은 청년상인과 청년음악가들에 대한 궁금증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받아 소개하고 전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전통시장에 이끌린 청춘'을 주제로 대인야시장에서 상추튀김을 파는 윤훈근(33)과 1913송정역시장에서 디자인상품 전문매장을 운영하는 김진아(33)가 출연한다. 이들은 청년창업 비법과 체험을 진행자인 바닥프로젝트 임웅의 노래와 함께 풀어낼 예정이다.

'우리음악에 이끌린 청춘'을 주제로 펼쳐지는 2부에서는 월드뮤직그룹 '리딩톤'이 출연해 한국창작음악을 선사한다. 리딩톤은 이승헌(피리·태평소), 변아영(해금), 이명훈(소금·대금) 등 연주자 3명과 작곡 강학선씨로 구성됐다.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이수자인 하윤주가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 방송은 전석초대이며, 방송은 25일 자정에 한다. 국악방송 홈페이지(www.gugakfm.co.kr)나 카카오 엘로아이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2-602-9332. /김미은기자 mekim@

'동백'

조현수 개인전 31일까지 전남대병원 갤러리

생명감 넘치는 자연을 화폭으로 옮기고 있는 조현수 작가가 전남대병원 CNUH갤러리에서 '시간의 여백'을 주제로 31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조 작가는 매화·동백·목련 등 꽃과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자연이 주는 다양한 풍광을 통해 정신적 사유와 함께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재충전 의미를 화폭에 담고 있다.

짙푸른 배경 속에 하얀 매화를 그린 '별빛이 내리다'는 꽃잎이 마치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을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time'은 사실주의 화풍으로 위에서 바라본 동백을 표현했다. 빛에 따른 그림자를 섬세하게 묘사하며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조씨는 "자연의 변화무상한 표정은 다양한 미적 감정을 환기시키는 원천이며 탐구대상이다"며 "작품을 통해 사유 시간을 가지며 건조한 삶에 활력을 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는 개인전 8회, 단체전 220여회를 가졌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신작전, 아트 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0-510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맨션 1층)